

## 트랜스젠더 연구: 퀴어 이론의 사악한 쌍둥이

GLQ 10:2, 2004

수잔 스트라이커

백소하 역주

김호영 감수

퀴어 이론이 섹슈얼리티 연구와 페미니즘의 결혼에서 태어난 것이라면, 트랜스젠더 연구는 퀴어 이론의 사악한 쌍둥이로 생각될 수 있다. 혈통은 같지만, 욕망이 형태를 갖추고 그 목표를 찾게 하는 (남자와 여자 같은) 젠더 범주보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그리고 이성애자 같은) 성별 정체성<sup>1)</sup> 표찰을 소중히 하는 특권적 가족 서사를 고의적으로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나는 『GLQ』 1호에 내 첫 학술 논문이자 성전환자로 커밍아웃하면서 겪은 경험으로부터 끌어내 자전적으로 굴절한 공연 작품, 「샤모니 마을 위 빅터 프랑켄슈타인에게 전하는 내 말」을 기고하였다.<sup>2)</sup> 그 논문은 눈에 띄는 이론적 순간 네 가지를 다루었다. 첫 번째는 젠더를 문제의 개념과 엮은, 주디스 버틀러의 당시에는 새로웠고 지금은 전형적인 연결이었다. 젠더의 부재는 섹슈얼리티를 대체로 일관성 없게 만드나, 그럼에도 젠더는 섹슈얼리티 체계가 이론화될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되기 거부한다.<sup>3)</sup>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상호교차점 분석에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기여를 예고한, 성전환성에 관한 비판적 재검토라고 느꼈다. 두 번째 순간은 샌디 스톤의 『‘제국’의 역습: 포스트성전환자 선언』이다. 이 글은 재니스 G. 레이먼드의 피해망상적인 『성전환자 제국』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성전환자들이 트랜스젠더 경험의 진정성을 더 잘 표현하는 새로운 자기 서사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을 촉구하였다.<sup>4)</sup> 나는 트랜스젠더 분노에 관한 내 글이 그 촉구에 대한 솔직한 응답이라고 여겼다. 세 번째 순간은 레슬리 파인버그의 소책자, 「트랜스젠더 해방」이다. 파인버그는 이미 존재하는 단어 **트랜스젠더**를 찾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스톤이 이론화한 포스트성전환증의 이름이 되게 하였다.<sup>5)</sup> 파인버그는 새로이 구상된 이 공간에 존재하려는 욕동을 사회 정의를 위한 더 넓은 범위의 투쟁과 관련지었다. 나는 스스로를 동료 여행자로 여겼다. 마침내, 나는 반(反)본질주의적이고 포스트정체성주의<sup>6)</sup>적

1) (역자주) 여기서 스트라이커가 사용하는 단어는 sexual identity이다. 즉, gender identity가 아니라 흔히 '생물학적 성'이라고 알려진, 성별이분법적 성 개념에 기반한 정체성 및 동일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흔히 '성 정체성'으로 번역되는 gender identity와 구분하기 위하여, sexual identity는 "성별 정체성"으로 번역한다.

2) Susan Stryker, "My Words to Victor Frankenstein above the Village of Chamounix: Performing Transgender Rage," *GLQ* 1 (1994): 237-54.

3) Judith Butler,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Routledge, 1993). (주디스 버틀러,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성"의 담론적 한계들에 대하여』, 김윤상 옮김 (고양: 인간사랑, 2003).)

4) Janice G. Raymond, *The Transsexual Empire: The Making of the She-Male* (Boston: Beacon, 1979); Sandy Stone, "The 'Empire' Strikes Back: A Posttranssexual Manifesto," in *Body Guards: The Cultural Politics of Gender Ambiguity*, ed. Julia Epstein and Kristina Straub (New York: Routledge, 1991), 280-304.

5) Leslie Feinberg, *Transgender Liberation: A Movement Whose Time Has Come* (New York: World View Forum, 1992).

6) (역자주) identitarian. 위키낱말사전은 그 어원인 identitarianism을 "정체성의 존재론에 기인한 일정한 생각", "사회적 정체성에 기초한 정치"라고 정의하나, 위키백과는 "배타적으로 그들만의 것이라

이며 전략적으로 유동적인 “퀴어함”의 새로운 개념이 지닌 정치적이고 이론적인, 엄청난 효용을 인지하였다. 나는 ‘퀴어 네이션’(특히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분리 단체, ‘트랜스젠더 네이션’)에 참여하여 성전환성의 실천에 관해 이론적인 이빨을 갈고닦았다.

내가 성전환자로 1992년에 커밍아웃했을 때, 나는 내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이자 레즈비언이라고 여김에도 대부분의 페미니스트 및 게이 혹은 레즈비언의 맥락에서 성전환자들이 비체적인 생명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몹시 잘 알고 있었다. 나는 『GLQ』를 새로운 퀴어 이론으로 나아가려는 선두주자로 보았고, 퀴어 이론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진보적인 분석 대부분에 정말이지 생각 없이 각인된 반(反)성전환자 도덕주의를 반동적이고 동성애혐오적이며 여성혐오적인 반격에 의지하지 않고 공격할 가능성을 보았다. 나는 대신 정체성이 뿌리박는 과정에서 젠더화하는 그 기반을 녹이고 새로 주조하려 했다. 체현과 정체화의 비(非)트랜스젠더 실천을 부자연스럽게 하여 그로부터 특권을 떼어버리고, 동시에 자아와 삶의 결혼에 관한 새로운 서사를 정립함으로써, 나는 비판적으로 다시금 형상화한 성전환자 실천을 위한 분석적이고 물질적인 새로운 영역을 만들려고 하였다.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이에 동일시하는 것, 비체화로부터 귀환하는 변화의 힘을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느꼈다.

10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나는 유명한 문학의 괴물로서 말하기를 선택함으로써 트랜스젠더 이론의 초기적 형성을 전할 강한 목소리를 찾았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말하지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가족적 유기에 관한 극, 나를 몰아낸 이들에 대한 복수의 환상, 그리고 개인적인 구원을 향한 갈망 안에 배치하였다. 나는 “퀴어”를 성전환자가 속한 가족으로 정의 하도록 돕고 싶었다. 1990년대 초의 짧은 역사적 순간에 내 삶과 수많은 다른 삶에 생기를 불어넣은 퀴어적 시각은 공동체의 보상적이고 이상적인 재구성에 관한 눈부신 전망을 보여주었다. 이는 가능성의 포스트모던적 공간으로의 반(反)오이디푸스적이고 열광적인 도약으로 보였다. 욕망의 기초적 용기(容器)가 파열하여 급진적인 사회 의제로 활용 가능한, 날것의 성애적 힘을 뿜어낼 수 있는 가능성 말이다. 그 시각은 아직도 내 숨을 멎게 한다.

백악관에 또 부시가 있고 페르시아 만에 또 전쟁이 일어나며 10년이 흐르자, 1990년대 초의 퀴어 혁명은 기껏해야 특정 영역에서 자유주의적 진보의 허술하고 보잘것없는 형태를 남겼고, 사회, 그리고 넓게 보면 학계도 급진적으로 변형하지 못했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해졌다. 퀴어 이론은 고등교육 내에서 대개 진보적이긴 하나 확립된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순진할 수도 있지만) 감지하였던 젠더, 특히 성전환성과 같이 소수자화되고 주변화된 젠더 표현에 관한 우리 이해의 급진적 재구조화의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이 이상적인) 가능성을 자각하지 못하였다. 퀴어 연구가 트랜스젠더 연구를 하기 가장 쾌적한 곳으로 남아있긴 하나, 너무도 자주 퀴어는 여전히 “게이”나 “레즈비언”의 암호이고, 너무도 자주 트랜스젠더 현상은 이성애규범성으로부터 구분되는 주요 수단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sup>7)</sup>을 특권화하는 렌즈

---

고 주장하는 문화와 영토에 관한 유럽인과 유럽 혈통의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2차대전 전후 유럽 극우 정치 이념이다.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근대 독일 철학의 존재론적 개념에 기반을 두고, 1960년대부터 형성된 (...) 이념”이라고 설명한다. 즉, 사회적 정체성의 절대성을 고집하는 일반적 이념과 1960년대부터 발흥한 프랑스의 음모론적 나치즘의 의미가 혼재되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둘 사이에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명시적으로 의미하는 바도 없기에, ‘정체성주의’라는 조어로 대체한다.

7) (역자주) 각주 1번(혹은 역자주 1번) 참조.

를 통해 오해되곤 한다.

가장 불쾌한 것은 “트랜스젠더”가 모든 젠더 문제를 억누르고, 그로 인해 동성애와 이성애가 인간다움의 안정적이고 규범적인 범주로 고정되는 데 일조하는 지점으로 점차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롭고 고립적인 정치적 귀결을 담고 있다. 이는 반(反)동화주의적이고 “퀴어한” 정치학을 좀 더 구미에 맞는 LGBT 민권 운동으로 변하게 한 것과 같은 발전 논리이다. 이러한 민권 운동에서 T는 인종이나 계급과 같이 존재하는 섹슈얼리티를 가로지르고 모든 정체성이 각자의 특이성을 획득하는 수단을 대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그저 성별 정체성의 다른 (쉽게 떨어지곤 하는) 장르로 일축된다.

트랜스젠더 연구의 장은 지난 10년에 걸쳐 퀴어 이론의 그림자라는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 때로는 퀴어 가족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가내의 비평을 제공하였고, 때로는 자신의 혈통을 박차고 나와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다. 어느 쪽이 되었건 간에 트랜스젠더 연구는 자신만의 궤적을 따르며, 젠더와 섹슈얼리티, 정체성, 체현, 그리고 욕망에 관한 비판적 연구의 떠오르는 문제를 게이, 레즈비언, 혹은 퀴어 연구가 성공적으로 항상 해내지는 못한 방식으로 다룰 잠재력이 있다. 이는 트랜스젠더 연구가 쉽게 이성애규범성으로 축소되지 않는 체현과 주체성의 비정형적인 형상을 살피면서도 퀴어 이론을 지배하는 성별 정체성의 분석적 틀에 대체로 포함되지 않는, 장애학과 인터섹스 연구라는 다른 두 가지 비판적 기획과 곧잘 공명한다는 점에서 특히나 참으로 보인다.

세계화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탈출불능의 맥락이 되면서, 구미(歐美)적 특권의 힘이 주어진 정체성이 비(非)서양 정체성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예민한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만일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역사와 인류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 문화가 몸, 주체성, 사회적 역할, 그리고 친족 구조를 결합하는 다양한 방식, 즉 우리가 “젠더”라고 부르는, 이해 가능한 인간성을 생산하는 막대한 기관을 만들었다는 것이리라. 인간성의 비서양적 배치를 섹슈얼리티와 젠더에 관한 서양의 구성체에 포함시켜 제국주의의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기란 역겨울 정도로 쉽다.

트랜스젠더 연구를 세계 시장을 위한 퀴어 이론으로서 제안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리라. 즉, [트랜스젠더 연구를 세계 시장을 위한 퀴어 이론으로 사용하는 것은 - 역자] 성적인 자아에 관한 서양의 관념을 수출하는 데 기울지 않고, 인간성의 토착적이고 비서양적 배치를 도용하는 데 기울지 않는 지적 틀로서 잘못되었다. 트랜스젠더 연구 역시 제1세계 원산지의 각인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연구가 퀴어 이론에 제공한 비평은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화자를 포함하고 인간의 삶과 사랑의 가변성과 특수성에 관해 논하는 활발한 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떠오르는 대화에는 실현될 급진적이고 퀴어한 잠재력이 남아있다.